그거 주세요

김 사 연
인천 만수당약국, 한국문인협회 회원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실수라는 것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엉겁결에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고의적인 것도 있다.

"인간은 한 두 가지의 허점을 보일 줄도 알아야 해. 그게 바로 타인에게 매력을 끌 수 있는, 밑천도 안 드는 자원이지."

내가 교양학부 시절, 철학 강의를 맡으셨던 교수님은 고의적인 실수의 필연성을 이런 식으로 내세웠다. 그리고는 대학에서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것보다 당신의 인생 강의를 귀담아 듣는 편이 더 현명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은 결강하려는 수강생들에겐 회유로 들리기도 했고 어쩌면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때 들은 강의 내용 중엔 '머슴의 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 같은 숙맥에게 안성맞춤의 내용이었다.

머슴들에게 지나치도록 인색한 부자가 있었다. 주인은 입이 심심할 때마다 머슴에게 팥죽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곤 했다. 그때마다 주인은 자기 배만 채우고 머슴에겐 먹어보란 빈말조차 없었다.

머슴은 인정머리 없는 주인을 골탕먹이기 위해 꾀를 짜냈다.

어느 날, 주인에게 손님이 찾아왔다. 그날도 주인은 손님의 팥죽 심부름까지 시키면서 머슴의 몫은 제외시켰다.

머슴은 팥죽 두 그릇을 사다가 주인 앞에 놓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었다. 그 이유를 묻는 주인에게 "실은… 팥죽이 쉬었나 냄새를 맡다가 그만 제 콧물이 팥죽에 떨어져서 건져내려고요" 하며 능청을 떨었다.

주인은 부아가 치밀었지만 차마 손님 앞에서 내색을 하지 못하고 머슴에게 억지 선심을 베풀어야 했다. 물론 콧물은 커녕 눈물 방울조차 떨어뜨린 일이 없으니 머슴은 그 동안 먹고 싶었던 팥죽을 실컷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고의적인 실수라면 꾸중조차도 즐겁겠지만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해 욕을 먹게 되는 경우는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의 경험도 없이 약국을 개업했을 때의 일이다. 약국은 약이나 조제하고 판매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탈지면이나 붕대 같은 위생 용품도 취급하고 있었고, 그 중엔 휴지를 비롯하여 아기들 기저귀까지 골고루 구색을 갖추고 있었다.

아기들 기저귀까지는 그런대로 덤덤하게 판매할 수 있었다. 헌데, 어른들 것이 문제였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와 "여자들 기저귀 하나 주구려" 했을 때 처음엔 '어른들도 기저귀를 차나' 하고 내 귀를 의심했었다. 그것도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젠 "그거 주세요."하는 소리만 들어도 생리대를 뜻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내가 괜히 약사가 되었나보다고 후회할 때가 있다.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들이 낯색 하나 붉히지 않고 생리대를 낱개로 포장해 달라고 할 때다. 그것을 포장하며 수줍어 어쩔 줄을 몰라하는 내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아가씨들이 생글생글 미소까지 지을 땐 내 신세가 처량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요즘은 도무지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모르겠다. 아기 엄마들은 '생리대' 소리조차 꺼내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거나 그것을 찾기 위해 사방을 두리번거리곤 한다. 반면에, 아가씨들은 굳이 내 손으로 포장해줘야 한다며 바쁜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짓궂은 경우도 허다하다.

하여튼 생리대를 찾는 손님만 나타나면 나는 주눅이 들어 얼굴부터 붉어지며 "어쩌다 내가 여자들 뒤치다꺼리하는 물건이나 주물럭거리는 신세가 되었지?"하고 푸념을 되씹곤 했다.

그러던 중, 접착제가 달린 신제

품 생리대가 시중에 나오기 시작했다. 다른 물건 같으면 호기심에서라도 구조와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생리대 노이로제에 걸린 나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아가씨가 접착제 생리대의 첫 손님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포장을 뜯고 생리대 하나를 꺼내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반창고처럼 그냥 붙여쓰는 건가봐요."

나는 무안감을 감추려고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며 시큰둥한 대꾸를 했다. 속으로는 '젠장 내가 써봤나. 남자인 나에게 그런 걸 물어 보면 어쩌자는거야' 하는 볼멘소리가 목울대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장사를 하려면 오장육부를 다 내놓아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을 떠올리며 서운한 마음을 달랬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약국 문을 열자마자 웬 아가씨로부터 신경질적인 전화가 왔다. 그녀는 어제 접착제가 달린 생리대를 첫 번째로 사간 손님이었다.

"아저씨도 약사예요? 새걸로 갈아 차는데 얼마나 따가웠는 줄 알아요? 똑바로 알고 팔란 말예요."

첫인상에 낯이 두껍다고 여겨졌던 그녀는 나에게 변명할 여유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래 난 진짜 약사다. 하지만 생리대 전문 약사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따갑다고? 생리대에 가시가 박혔었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따갑다는 투정은 이해가 안 갔다. 그제야 나는 신제품 생리대를 꺼내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과연 광고대로 생리대 한가운데엔 접착제가 달려 있었다. 나는 접착제의 강도를 시험해보기 위해 생리대를 팔목에 붙여 보았다.

순간, 언젠가 내 팔목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반창고를 붙였던 일이 생각났다. 가제를 새것으로 갈아붙이려고 반창고를 떼어낼 때 솜털이 묻어나면서 몹시 따가웠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렇다면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생리대의 접착 부분은 일반 반창고처럼 피부에 직접 붙이는 것이 아니라 속옷에 붙여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붙여 쓰라고만 했으니….

나는 '따가웠다'는 투정의 깊은 의미를 그제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고의로 골탕을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지른 실수인데도 굳이 약사 자격증까지 들먹거리는 그녀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접착제 달린 그거 주세요."

다음부터, 나는 확실한 약사 면허증 소지자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신제품 생리대를 찾는 손님이 올 때마다 "꼭… 거시기가 아닌 팬티에 붙여서 사용하셔야 돼요!" 하고 자상하게 일러주는 친절을 잊지 않았다. 한 번의 실수는 애교로 넘길 수 있지만 두 번의 실수는 고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는 '머슴의 꾀'를 흉내내며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본의 아닌 실수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